

메르스 유행과 관련된 내러티브 (Narrative) 분석을 위한 메모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0. 논의의 배경 및 범위

○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병원 감염에 취약한 의료 체계의 문제와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었고,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임.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요구로 8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①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② 공공의료 확충 ③ 간병의 공공화 ④ 의료상업화의 중단 ⑤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⑥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⑦ 응급실 구조개혁 ⑧ 주치의제 도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논의는 이것에 한정될 수 없음. 감염병 유행은 질병의 특성상 다양한 사회, 정치, 과학기술 영역 논의를 촉발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번 메르스 유행시에도 그러한 논의는 단편적으로나마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한 논의는 1차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항/삼항 대립의 쌍 혹은 단편적 문제 제기의 형태로 드러남

- 방역을 위한 격리 vs 개인의 이동의 자유
- 방역을 위한 알 권리 vs 개인의 프라이버시/병원의 이윤 vs 위험 소통
- 방역을 위한 병원 폐쇄 vs 병원의 이윤/병원의 다른 환자에 대한 부수적 피해
- 방역을 위한 병상 확보 vs 사회적 약자의 반강제적 퇴원
- 방역에 임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 vs 보호받아야 할 의료인의 건강과 안전
- 차별과 배제 : 외국인 포비아, 비정규직 차별, 격리자 혹은 환자에 대한 낙인
-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권력의 성격 : 권위주의 vs 관료주의 vs 소통적 민주주의 등등

○ 메르스 유행시 제기된 담론 지형은 정치/권력, 방역 체계, 의료 체계와 관련된 담론이 압도적이었고, 인권, 노동, 환경, 생태, 사회정의 등과 관련된 담론은 소수였고 울림이나 공감도 적은 편이었음. 유행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는 현재 논의 지형은 방역 체계 개혁과 관련된 것으로 극히 협소화되고 있는 양상임(이에 대해서는 담론 분석 등의 방법론을 이용한 실증적, 양적 데이터 작업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 이러한 현상이 감염병 일반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지, 메르스라는 특수한 바이러스 질환의 성격 때문인지, 한국적 특성인지 등등에 대한 분석적 의문이 존재

○ 이에 메르스 유행시 제기된 여러 논점들을 분석, 정리, 논의하고 대안적인 정치적 관점 및 개입지점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서, 메르스를 둘러싼 논의들을 일정한 내러티브

브 구조 속에 위치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 파악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함

- 이는 메르스 유행시 제기된 각각의 인권, 노동, 환경, 생태, 사회정의 영역의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임

- 예를 들어, 격리자/감염자의 인권 및 권리 논의를 방역 vs 개인의 인권/프라이버시 문제 틀 안에서 진행하면,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는 제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제한적이어야 하며,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 결론 이상을 넘어서기 힘들

- 인간-자연-사회의 경계선상에서 기후변화 등이 복합되어 변화되고 있는 신종 감염병 문제도 ‘급격히 닥친 위기에 대한 대응’ 프레임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이상, 한가하며 탁상공론적인 논의로 치부될 공산이 큼

- 하지만, 이는 적지 않은 자료 조사와 시간 투여가 필요한 것이기에, 오늘은 본격적인 작업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의 성격을 갖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함

1. 감염병 유행과 관련된 내러티브(Narrative), 프레임(framing)¹⁾

가. 개념들

○ 프레임(framing) :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식

- 특정한 사회적 행위자가 경험한 현상을 위치 짓고, 인식하고, 확인하고, 명명하는 방식

- 문제에 대한 분석과 행동을 규정하는 강력하고 일반적인 내러티브

1) 이 장은 Leach, M., Scoones, I., & Stirling, A. (2010). Governing epidemics in an age of complexity: narratives, politics and pathways to sustainability.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0(3), 369-377. 논문을 소개하고 그 틀에 따라 간략한 분석을 시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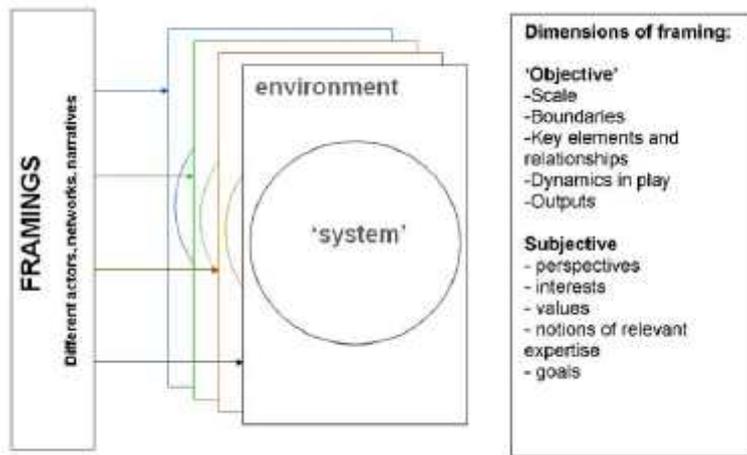


그림 1 사회-생태-기술 시스템의 다양한 프레이밍

자료 : Leach, M 등(2010).

○ “Pathways approach” : 모든 분석은 프레이밍을 필요로 하고, 모든 프레이밍은 어떤 요인을 강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관적인 판단과 가치가 개입됨
 - 이러한 프레이밍은 아젠다 셋팅, 목표 정의, 선택지의 설정, 물음의 범위, 우선순위 설정, 방법의 선택, 관련 지식의 선택,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등의 영역에 다른 접근방식으로 인도함

○ 특정한 시스템 프레이밍은 종종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한 내러티브 형태가 됨
 - 여기서 “내러티브”란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결과를 상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단순한 이야기 구조
 - 내러티브는 특정한 행위자, 네트워크,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화됨
 - 내러티브는 특정한 종류의 행동, 전략, 개입을 정당화함

나. 대표적인 감염병 유행의 내러티브, 프레임

1) Outbreak 내러티브

- 질병의 다이내믹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전형적인 대응을 모색 : 박멸을 목표로 근원에서부터 보편적인 일반적 긴급 조치를 시행
- 목표는 사망률 감소,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과 전문가들이 요구됨 : 감염내과, 역학자, 미생물학자, 통계학자 등
- 감염병의 컨텍스트를 강조하는 ‘configuration’ explanation 보다는, 감염경로에 집중하는 ‘contamination’ approach를 선호
- “health security” 프레임 : 자원, 권력의 집중, 조직 확장
 - 조기 경보, 위험 평가, 집중적인 감시체계, 유행 모니터링, 대유행 대비, 즉각 대응

팀 구성, 긴급 대처 계획 등

- 심한 경우,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격리와 장벽 설치

2)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 집중하는 지역 개입 프레임

○ 아직 형성 중인 모델

○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과 질병에 취약한 특정 집단 문제, 중장기적 변화에 집중

- 인간-동물-환경간 상호작용의 장기적 변화에 관심 : 농업의 변화, 기후 변화 상황에서 토지 이용과 생계 문제 등

- 개발과 적응에 중점 : 통합적인 벡터 관리 등의 형태로 토지 이용이나 에코시스템에 대한 개입을 선호

- 질병 생태학에 초점 : 바이러스, 사회, 환경간 예측하지 못한 상호작용의 결과

3) 유행보다는 풍토병적 특성을 강조하는 프레임

○ 토착민들에게는 새로운 유행병이 아니라 풍토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지역적 지식, 실행, 관심을 바탕으로 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더 컨텍스트 특이적이고, 적절하며 수용성이 강하다는 주장

다. 특정 내러티브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이유

○ 특정 기관의 압도적 우위 : 재정 조달, 기관 확장의 문제

○ 전문성 : 생의학, 역학에 대한 일반적 우위 옹호

○ 공포에 기반 언론의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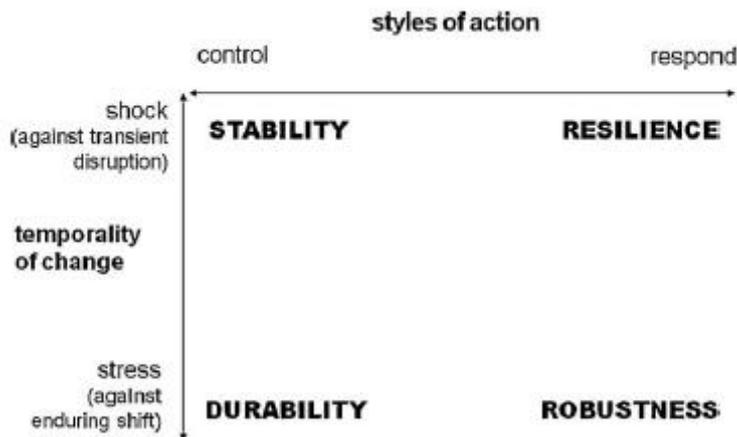


그림 2 지속가능성의 동적 특성

자료 : Leach, M 등(2010).

○ 특정 내러티브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여 이것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님

- 단, 변화하는 생태환경, 사회, 인간-동물 관계를 장기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궁극적

인 처방이 되지 못할 가능성 존재

- 사회정의와 분배 관점이 사상됨으로 인해 불평등이나 차별, 배제의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 존재 : 기존 방역 정책에 대한 수용성 및 효과도 반감될 가능성 존재

라. 대안적인 감염병 거버넌스

○ Outbreak 내러티브가 ‘유일하게 효과적인 인식 틀’이 아님을 인정하고 열린 토론과 대화 형성

○ Outbreak 내러티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안적인 내러티브 형성 및 대응을 모색

○ 불평등, 차별, 배제의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 당사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마. 한국의 메르스 유행에 대한 시사점

○ 메르스는 한국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였고, Shock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멸’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outbreak 내러티브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음

○ 이에 ‘Stability’에 역점을 둔 대응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보다 효과적인 ‘전문성’, 효과적인 방역 조직 구조 및 자원 동원, 재정 문제 등으로 논의 프레임이 형성되었음

○ 메르스라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인권, 에코시스템, 낙인, 차별, 배제 등의 논의는 outbreak 내러티브 내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주변화되었음

○ 메르스 확산이 병원 감염 경로로 진행되었기에 한국의 의료 체계 문제에 대한 담론은 그나마 예외적으로 활발히 형성될 수 있었음

○ 하지만 중동에서 메르스 유입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고, 메르스뿐 아니라 다른 인수공통 감염병의 유입 및 유행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가능성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협을 ‘stress’로 간주하고, ‘Durability’, ‘Robustness’ 차원의 대응의 준비될 필요가 있고, ‘resilience’ 차원의 논의도 필요함

-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의료 체계 개편 논의의 정당성 존재

- Ecosystem에 대한 논의 및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논의 촉발 필요

○ 불평등, 차별, 배제, 인권 침해의 문제 등 사회경제적 구조 및 사회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보다 부각시킬 필요 존재 : 당사자 참여 문제도 강조할 필요 있음

2. 인수공통 감염병과 관련된 과학적 모델과 내러티브의 상호 작용²⁾

2) 이 장은 Leach, M., & Scoones, I. (2013). The social and political lives of zoonotic disease models: narratives, science and policy. *Social science & medicine*, 88, 10-17. 논문을 소개하

가. 인수공통 감염병과 관련된 과학적 모델의 종류

1) 수학적 과정 중심의 모델

- ‘봉쇄(containment)’ 전략 중심 : 조기 발견, 역학조사, 격리, 약물의 대량 사용, 추적 관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박멸을 목표로 함
- 수학적 계산에 의한 전략 : 적용된 데이터의 일반화 부족 문제, parameter의 문제, 비현실적인 가정 등이 문제로 지적. 모델링에 이용된 데이터의 바이러스-숙주-환경-사회 관계가 실제 그 모델을 적용할 공간 혹은 대상의 바이러스-숙주-환경-사회 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음
- ‘top-down’ 방식, 전문주의적 해결 방식 선호, 타이밍이 중요
- 불확실성이 큰 감염병에는 한정적 효과만 있다는 비판 존재 : 결과에 대한 확률 데이터 부재, 결과에 대한 논란 존재
- 실제 현실에서는 방역 과정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한계

2) 경험적 패턴의 통계 분석에 근거한 모델

- 수학적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측보다는 기존 데이터의 패턴에 근거한 모델
- 감염병 유행의 특정 컨텍스트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
- 경험적 사실에만 근거한 요인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 존재 : 이것에 근거한 정책은 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토착 주민에게 오히려 해를 입히기도 함

3) 참여 모델

- 사회적 관계, 문화적 특성, 생태 등을 고려한 모델
- 민속지적, 참여관찰적 방식으로 질병 원인과 전파 원인을 파악
- 동물-사람-생태에 대한 통합적 관점

나. 특정 모델이 정책 영역에서 더 우월한 이유

- 사회기술적 이유 : 컴퓨터, 빅 데이터 등의 발달로 수학적 모델링 기술 발전
- 학문세계의 서열
- 학문세계의 내재적 관행화
- 재정 충당의 정치학
- 정치적, 상업적, 군사적 이해 관계

다. 한국의 메르스 유행에 대한 시사점

고, 그 틀에 따라 간략한 분석을 시도한 것임.

○ 메르스 유행시 수학적 모델, 통계학적 모델이 메르스를 종식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전제는 공유한 상태에서, 방역 기관 및 전문가들의 ‘전문성’ 내지는 ‘오류’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논의 프레임이 형성

- 초기 대응의 실패 : 타이밍의 문제

- 역학조사 및 격리, 추적 관찰의 전문성 부족 : 역학적 전문성의 문제

- 효과적이고 신속한 격리대상자 확인 및 추적 관찰 실패 : 자원 동원의 문제

- 중동에서의 기존 데이터조차도 제대로 참조하지 않은 방역 정책 : 통계에 근거한 모델

○ 수학적 모델, 통계적 모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처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남는 문제와, 이러한 모델조차 적절히 적용하지 못해 확산된 문제가 뒤섞여 전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담론 구조가 형성되었음

○ 중동 메르스 질병 모델을 잘 적용했다라도 남는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발굴과 논의가 좀 더 필요함

3. 감염병에 대한 은유(Metaphor) 측면의 고찰³⁾

가. 질병, 은유, 정책

○ ‘은유로서의 질병’은 수잔 손택 등이 분석에 사용한 개념으로 질병에 대한 비유와 낙인이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드러낸 개념임 : AIDS에 대한 비유와 낙인의 상호 관계에 대한 문헌이 다수 존재

○ 질병에 대한 군사적 비유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또한 가장 오래되고 강한 비유 중에 하나임

- 중앙집권적인 관리, 다소 낭비적일 수도 있는 자원 동원, 희생과 권리 침해 등을 정당화하고, 환자를 패배자 혹은 낙오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양산

○ 이에 질병에 대한 은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생태적’인 은유, ‘정치적으로 해방적인’ 은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수잔 손택에 따르면, 단순하고 일시적인 유행으로 인식되는 감염병은 비유적 표현을 얻기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폈음

나. 감염병과 관련된 질병 은유

3) 이 장은 Wallis, P., & Nerlich, B. (2005). Disease metaphors in new epidemics: the UK media framing of the 2003 SARS epidemic. *Social science & medicine*, 60(11), 2629-2639. 논문을 소개하고 그 틀에 따라 간략한 분석을 시도한 것임.

1) 전쟁(War)

- 감염병이 경제적 문제, 생물학적 테러 등의 맥락에서 제기될 때 사용되는 경향
- “감염병과의 사투”, “전선에 선 사람들”, “감염병과의 전투를 이끄는 야전사령관”, “승리”, “패배”, “보이지 않는 적” 등 의 표현이 쓰임
- 개인적 위협이면서도 국가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느껴질 때 자주 등장하는 은유

2) 현대의 흑사병(Modern Plaques)

- AIDS 은유에 주로 사용되던 용법
- 다양한 낙인과 공포를 양산하는 은유

3) 살인자(Killer)

- ‘문고리에 남아서’, ‘도시를 유린하고’, ‘어슬렁거리며 남아있는’
- ‘피해자’ 은유 : 감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제는 덜함
- ‘공포’ ‘유령’ ‘악몽’ 형태로 묘사
- 맹수의 이미지로 이미지화
- 방역 기관의 대처는 ‘조사’ ‘추적’ 등의 이미지로 묘사
- 살인자 은유와 군사적 은유는 상호 중첩됨 : 군사적 은유와의 차이점은 살인자의 경우 전략, 선진, 장군, 군대의 이미지가 없다는 것
- ‘타격을 주다’는 이미지로 피해를 묘사. 물리적 힘과 연관

4) 기타

- 수퍼 바이러스, 수퍼 박테리아, 미스터리
- 불, 지진, 화산, 폭풍 등 재난적 이미지와 연관
- 감염자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 생산 : 비난의 가능성 제공 : 피해자, 감염자, 보균자 등의 이미지화의 차이
- 질병이 유행한 특정 지역 혹은 인종으로 이미지화
- 어떤 용기 안에 갇혀 있는 이미지와 넘치는 이미지로 질병의 확산을 이미지화
- 방역 당국은 종종 경찰의 이미지와 중첩

다. 한국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질병 은유(실증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

- 살인자 은유 혹은 재난 은유가 주되게 작용 : 세월호 사고와 유비 작용 발생
- 감염자가 피해자로 은유되는 경우가 많았고, 낙인이나 배제의 효과를 지니는 은유는 많지 않았음
- 감염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형성되긴 하였으나, 강하게 퍼지지는 못함
- 중동 및 외국인에 대한 낙인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
- 감염병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고생하는 ‘영웅’ 혹은 ‘야전 군

- 인' 이미지화 존재 vs 감염인 혹은 격리자의 피해에 대한 은유는 상대적으로 적음
- 메르스는 그 질병의 특성상 전투 이미지 혹은 흑사병 이미지 등 낙인, 배제 등이 강하게 작용하는 은유가 강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음
 - 하지만, 개인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이미지화보다는 메르스와 '싸우는' 의료인들의 영웅적 이미지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어났고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하다는 것을 드러냄